# “청년 전법 서원” 1080배 정진

**대불련, 서울 홍대선원서 법회 진행**
**8월 23일, 3명 발원에 23명 동참**
**원력 확인 · 청년불교 미래 고민도**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8월 23일 서울 홍대선원에서 대학생 전법과 포교 원력을 위한 ‘KBUF 1080배 수행 정진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20여 명이 동참했다.

‘딱, 딱, 딱.’ 늦은 밤 죽비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소리에 맞춰 대학생 불자들이 일제히 몸을 낮춰 절을 올렸다. 한 배 한 배 이어지는 1080배에는 저마다의 발원과 간절한 원력이 정성스럽게 담겼다.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는 8월 23일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에서 대학생 전법과 포교 원력을 위한 ‘KBUF 1080배 수행 정진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 지부장·지회장 및 대학생 불교동아리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새벽까지 절을 이어갔고, 이 가운데 19명이 목표 1080배를 마쳤다.

이번 법회는 최근 ‘힙(Hip)한 불교’ 열풍을 계기로 높아진 청년층의 불교 관심을 실제 자기 수행과 성찰의 전법 원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적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생 불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서로의 원력을 확인하며 청년불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참가자 소개 및 ‘1080배 수행 정진 법회 서원지’ 발원 나눔을 시작으로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입재 법문, 대학생 발원문 낭독, 1080배 정진(구간별 명상 병행), 소감 나누기, 사홍서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하며 이번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법회는 김예빈 대동대 불교학생회장의 제안으로 실행됐다. 처음에는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을 비롯한 3명이 함께하는 작은 법회로 기획됐지만, 단기간에 원력이 모이면서 참가자가 20여 명으로 늘었다. 청년 포교 도량인 홍대선원이 장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수행 정진을 뒷받침했다.

법회에 앞서 진행된 차담에서는 학생들이 서원지에 각자 발원 내용을 적어 팀별로 서로를 소개하며 발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회원들은 서원지를 통해 △좌우명 △이번 정진에서 꼭 비워내고 싶은 한 가지 △1080배 끝의 나에게 △나의 서원 △가장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건네고 싶은 응원 등을 적었다.

선 회장은 입재식에서 “1080배는 결코 쉽지 않지만 나를 낮추고 번뇌를 비워내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배 한 배 절을 올릴 때마다 내 안에 밝고 맑은 불성을 깨우고, 곁에 있는 도반들과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끝까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발원한다”고 말했다.

대불련 회원들은 김예빈 학생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우리가 만난 인연은 불자의 소중한 생명을 잊지 않고 부처님의 오신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밝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며 “모든 생명과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이곳에 온 다짐들은 조금씩 다를 테지만,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한 배 한 배 정성껏 절을 하는 그 자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절을 하다보면 나의 힘이 조금 더 세지고 지혜로워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인연들에게 이 힘을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법회에 참가한 김수민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부회장(22)은 “처음이라 두렵지만 설레기도 한다”며 “‘1080배를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추천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내고 싶다”고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홍대선원 부전 중봉 스님이 학생들과 함께 1080배를 올렸다. 324배씩 세 차례 진행한 뒤 마지막 108배를 올리며 수행을 회향했다.

23명으로 시작한 이날 정진에서 19명이 1080배 목표를 달성했다.

## 기자칼럼

###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점메추(점심 메뉴 추천)’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다. 오늘 하루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소소한 바람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한 끼 음식이 하루의 작은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 준다.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원하는 음식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 복날이면 자연스럽게 삼계탕을 찾고, ‘33데이’에는 삼겹살을 먹는다. 꼭 먹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날에는 그 음식’이라는 익숙한 문화가 선택을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음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특히 배달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와 과도한 포장, 장거리 운송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여러 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다. 육류 중심 식생활 역시 사료 생산과 가축 사육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물과 토지 등의 자원도 많이 필요로 한다.

결국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개인 취향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공동의 문제로 생각해 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불교환경연대가 매년 복날을 맞아 펼치는 ‘복날채식캠페인’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날 육류 소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온 오늘 우리의 식탁을 잠시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올해 캠페인에서도 초복부터 말복까지 하루 한 끼 채식을 약속하는 ‘채식 서약’,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에서 채식을 실천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채식 서약’에는 전국에서 232명이 동참했고, 참가자들은 “올해 상상 이상의 더위를 체감하며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 “고기에 익숙했던 나를 발견했다” “채식으로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자신의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를 공유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거창한 결심으로만 시작되는 건 아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익숙한 선택을 한 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한 끼가 기후위기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오늘을 돌아보면 내일의 한 끼가 달라질 수 있고, 내일의 한 끼가 또 다른 무수한 날들의 한 끼를 바꿔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현희 편집국 기자

# “‘금강산’ 가치 보존, 남북 함께 책임져야”

**8월 25일, 민추본 제3차 연구 포럼**
**금강산 역사적 · 문화적 가치 조명**



“금강산의 가치는 유산이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남북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와 문화에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남북의 공동 책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각자 보유한 유산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의 보존·기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미 고려대 문화유산학부 초빙교수〈사진〉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8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차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 ‘남과 북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강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남한에서의 세계유산 금강산 인식과 정책 방향’ 주제 발제에서 “유네스코는 금강산을 자연경관과 한국 산악불교·순례·산악신앙 역사가 복합적으로 얽힌 ‘연상적 문화경관’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의 가치는 산 자체뿐 아니라 그곳에서 이뤄진 수행과 순례, 그림과 문학 등으로 기록해 온 역사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금강산의 가치가 남북에 다른 형태로 산재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금강산의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역사적 자료와 기억들은 남한에도 있다”며 “금강산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한쪽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분산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사찰·암자·석각 등 세계유산 현장이 있고, 남한에는 유산기·고문헌·고지도 등 금강산의 역사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돼 있는 만큼 “금강산의 형성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보존해 다음 세대에 전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OUV 증거 아카이브 구축 △남한에 있는 금강산 자료 구조화 △역사문화경관 중첩 지도 마련 △사찰 단청 보존 기록 △무형기억유산 기록 ‘디지털 와유(臥遊)’ △공동 모니터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포럼에 앞서 민추본 부본부장 진경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포럼을 통해 남북이 화해의 물길을 트고, 언제나 왕래할 수 있는 금강산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 청소년들 음악 연주로 기린 광복 81주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음악회**
**시민 캠페인, 광복 의미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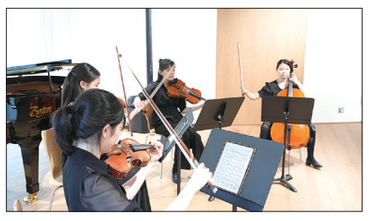


사진 제공=나눔의집

광복 81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나눔의집(대표이사 세영 스님)은 8월 15일 서울 보스턴체임버에서 ‘제81주년 나눔의집과 함께하는 광복절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 연주자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으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전통 민요 ‘아리랑’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펼쳐졌다. 청소년들이 광복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곡 선정과 무대 구성 등에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초와 당시 역사도 함께 살펴보며 인권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공연에 앞서 시민들은 역사·평화·인권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기억’ ‘자유’ ‘평화’ ‘희망’ 중 광복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키워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현희 기자

# 조계종 신도교육 교재 7년 만 개편

**포교부, 2026 불교대학 학장회의**
**‘부처님 생애’ ‘불자 의례’ 신설**
**개편 교재, 내년 3월부터 사용**



조계종 신도전문교육 필수교재 〈불교개설〉이 7년 만에 개편된다. ‘부처님의 생애’와 ‘불자의 의례’를 신설해 필수교재를 〈불교개설〉 1종으로 단일화하고, 필수교과 이수 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8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 신도전문교육기관 불교대학 학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56개 불교대학 학장 스님과 실무자 등 총 58명이 참석했다.

기존 불교대학 기본과정에서는 필수교재로 〈불교개설〉과 〈부처님의 생애〉 2종을 사용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이를 통합한 〈불교개설〉 1종을 사용한다. 새 〈불교개설〉에는 교육 순서상 ‘부처님의 생애’를 학습한 뒤 불법승 삼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고, 불자로서 알아야 하는 기본 의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 ‘불자의 의례’를 신설했다. 또 신도기본교육 교재인 〈불교입문〉에서 배운 내용을 한층 심화해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필수교과인 〈불교개설〉의 이수 시간을 기존 ‘16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선택교과로 분류된 〈불교문화〉와 〈불교사의 이해〉 중 최소 1과목은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편된 〈불교개설〉은 오는 12월 발간돼 2027년 3월 학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포불교대학 운영 사례 공유, 불교대학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포교부 주요 사업 소개 및 포교자료 공유 등이 이뤄졌다.

박지운 기자

# 3000여 포교사, 백양사서 철야정진

**조계종 포교사단, 9월 12~13일**
**‘제22회 팔재계수계법회’ 봉행**
**일반포교사 · 전문포교사 품수식도**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강의수)이 무박 2일 철야정진의 팔재계수법회를 통해 전국 포교사들의 포교 원력을 다진다.

포교사단은 9월 12일 무박 2일로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제22회 팔재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주최하고 포교사단이 주관하며 마음챙김행복개발원이 시행하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전국에서 3000여 명의 포교사가 동참할 예정이다.

팔재계수계법회는 포교사로서 지계 실천과 신행활동 점검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봉행된다. 법회에서는 제31회 일반포교사 품수식을 비롯해 제19회·제20회 전문포교사 품수식, 마음챙김행복개발원 시민의식 개혁대회도 함께 거행된다. 제31회 일반포교사 품수식에서는 344명이, 제19회·제20회 전문포교사 품수식에서는 각각 12명과 8명이 품수한다.

첫날 1부 행사는 식전행사와 수메다회 모임을 시작으로 입재식, 포교사 품수식, 8재계수계식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포교부장 정무 스님의 특강을 통해 포교사들에게 수행과 전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후 9시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포교사의 노래·다짐, 시상식(상임지도법사상, 포교사단장상), 축가(부산지역단 합창단) 등이 마련된다.

오후 11시 30분부터는 본격적인 철야정진에 들어간다. 참가자들은 선명상 걷기를 비롯해 철야정진(금강경 독송), 새벽예불, 회향식, 사홍서원, 지역단별 촬영 등을 끝으로 오전 6시에 무박 2일 일정을 회향한다.

포교사단은 “지계실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기원하는 팔재계수계법회 및 포교부 정기연수에 포교사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며 “올해 팔재계는 무박 2일 수행으로 그간의 수행을 점검하고 포교원력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운 기자

# 캄보디아 아동센터 부처님 개금불사 봉행

**11월 25일까지 모금 전개**
**공덕주 석판 교체 작업도**



캄보디아 아동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센터 내에 모셔진 부처님. 사진 제공=로터스월드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캄보디아 아동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아동센터 내에 모셔진 부처님을 새롭게 단장하는 개금불사를 봉행한다.

개금불사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1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회향식은 11월 2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리는 아동센터 설립 20주년 기념법회에 앞서 거행된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운동장 중앙에 모셔진 부처님은 아동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2016년 조성됐다. 캄보디아 전통 압살라 양식 전각 내에 석재로 조성된 부처님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을 참고해 조성됐으며, 10년간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살피는 아동센터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열대 우기와 혹서기가 반복되는 캄보디아의 기후 특성상 풍화 작용 등으로 훼손이 급격히 진행된 상황이다.

이번 개금불사에서는 공덕주 석판 교체 작업도 이뤄진다. 개금불사에 동참한 이들의 이름을 석재 명판에 새기고 부처님 좌대 하단부에 봉안해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다. 석판 봉안 모습은 오는 12월 참여자들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1인 단독 석판은 100만원, 12인 공동 석판은 개인당 10만원이다.

성관 스님은 “이번 개금불사가 세월의 흔적이 깃든 부처님께 새 금빛 가사를 올리는 동시에 캄보디아 아이들의 앞날에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기를 발원하는 대작불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02-725-4277

**후원 계좌: 기업은행 024-071023-01-024 로터스월드**

이현희 기자